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협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에이즈 관리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李德衡 보건복지부 방역과장은 "에이즈 관리는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감염자 관리는 물론 감염자의 인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과장은 또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하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 정부의 역할과 함께 감염자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崔庚元 협회 부회장(서울의대 내과교수)은 "에이즈의 예방과 환자의 치료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제성과 예산상의 한계로 제한적인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감염자들을 접촉하거나 위험요소군에 접근해 적극적인 예방 및 감염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려면 민간단체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崔부회장은 "특히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정부의 법적, 행정적 지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에이즈감염자모임인 '희망나눔터' 김형철 회장은 에이즈감염자들이 심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에이즈역사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과 정확한 홍보"라고 말했다.

협회는 세미나에 앞서 崔庚元 부회장, 柳聖熙 의사협회장, 세계보건기구 주한대표 메타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수환 (추기경) 고문은 대만 보인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집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고문은 5월 21일 10시 30분 경기 파주군 문산읍 육군 2258 부대에서 걸스카우트 단원과 한국청소년연맹 단원 3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기원 결

의대회를 열었다.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고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길병원은 인천광역시 백령면 백령도에 '백령길병원' 개원식을 갖고 환자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육지와 떨어진 오지라는 계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의 참관 행사도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백령도와 인천에 있는 두 병원의 의사와 환자가 생중계되는 서로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면서 진료와 대화를 나누게 해준다.

이영덕 (前 국무총리) 고문은 5월 4일 전주대 개교 31주년 기념식장에서 국가와 종교계 및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5월 17일 정신문화연구원의 새 원장에 선임된 李 고문은 "현 단계는 정부가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흥시켜야 할 때"라면서 "정신문화연구원이 그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청소년 문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李 고문은 현재 맡고 있는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사장직을 하면서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A**